

韓國 港灣都市의 都市景觀의 形成과 變化에 관한 研究(I)

— 解釋方法論을 중심으로 —

黃 琪 源* · 俞 炳 林** · 李 敏 雨***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Shaping of Townscapes of Port Towns in Korea: with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the Main Issue (I)

Hwang, Keewon · Yoo, Byung-Rim · Lee, Minw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to propose an interpretation method of urban landscapes in Korea, which are formed and transformed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As the theoretical basis, an extensive study is done to define the concepts of urban landscape; townscape in the architectonic terms, urban landscape in the cultural-geographical terms, and urban landscape in the landscape ecology are those scrutinized.

As for the interpretation method, the landscape process that encompasses the spatio-temporal transformation, the causes and effects of morphogenesis, the contents and forms of landscape change are studied. The emphasis is placed on the reasons and process of the cultural change from the original landscapes toward the contemporary landscapes in the rapidly urbanizing area.

With these basic concepts and interpretation method, an on-site case study of 'Inchon' that has been changed drastically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s done, of which results will be reported in the following article(II).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都市는 농경 이외의 생산양식과 많은 인구의 定住

라는 조건에 기인하여 形質이라는 観点에서는 원래 주어진 自然環境을 소지로 하여 상당히 많은 變化가 가해진 人工環境이다. 都市는 거시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미시적으로는 시민 각자의 삶을 담아주고 받 쳐주는 그릇(container)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를 바로 環境으로서 인식하는 것인데, 都市의 물리적 구성이나 사회·경제적 구조가 인간의 삶을 규정짓는 '條件'으로서 작용하며, 또 의식을 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인간은 항상 그 '都市環境' 속에 있고, 그 都市環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관점이다.

한편 都市는 이러한 環境이라는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景觀'(landscape)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 국면은 都市라는 물리적 실체의 단순한 겉모습, 外觀도 아니고, 아름다운 외관, 즉 美觀만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都市에 사는 인간의 공통적 생활양식, 문화가 표현되고 축적된 '文化景觀'인 것이고 그 기록인 '歷史景觀'인 것이다.

같은 都市를 환경이라고 보게 되면 都市 '속'에 들어가 관찰하고 설명하게 되나, 景觀이라고 보게 되면 이와는 달리 都市 '밖'에서 간파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속에 들어가 근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유용함은 물론이며, 대부분의 현대학문이 이러한 접근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이 거대하고 복잡하며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近接·分析의 접근에 못지 않게 鳥瞰·解釋의 접근이 유용하기도 하여 근자에 한 유용한 연구방법으로서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都市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의 유용성이 예상되며, 그 한 시도로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의 도시경관이 점차 낮설고 알기 어려운 대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도 삶의 조건으로서 부적합하거나, 또는 적합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鳥瞰·解釋의 발상은 景觀의 변화 규모와 속도가 지나치고, 그 변화요인이 주로 경제적·공학적 기준에 근거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정체를 파악하는 代案으로서 의미가 있다.

2. 研究의 內容

1) 基本概念의 定義

景觀은 '한정된 土地', '景致', '만들어진 景致', '地域'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多義의 개념인 '景觀'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작적 정의를

한다.

또 類概念인 景觀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種概念인 '都市景觀'을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都市景觀이라는 술어는 townscape라는 영어의 번역어로서, 景觀, 즉 landscape라는 술어와는 발생과정이 다르다. 또 도시경관에는 urban landscape와 동의어로 정의되는 개념도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2) 方法論의 研究

기본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都市景觀을 해석하는 方法論을 가설한다. 이 연구에서는 '解釋'이라는 접근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며, 이 접근이 '分析'이라는 접근방법과 상이한 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II. 都市景觀 관련개념의 정의

都市景觀은 '都市'라는 지리적·환경적 단위에 국한된 '景觀'으로서, '景觀'이라는 상위개념 속에 포섭되는 하위개념이다. 이 때 경관의 하위에 있으면서 도시경관과 同位에 있는 개념으로서 농촌경관, 근교경관, 야생경관 등을 들 수가 있다. 도시경관의 개념을 정의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정의하기만 하면 단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시개념을 정의하는 것만큼, 또는 더 어려운 것은 경관을 정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景觀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기 좋은 경치'라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다의적이라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多義의 개념들은 각각 고유한 역사적 발생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으며, 서로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고, 각각 다른 학문영역에서 나름대로 그 개념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景觀의 多義性

도시경관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경관개념의 多義性(ambiguity; 한 명사에 대하여 각각 독립된 복수의 개념이 병치되어 있음)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경관 개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景致'(scenery) 이외에 土地(land), 만들어진 景致, 地域(area, region)

이라는 개념인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¹⁾

景觀의 다의적 개념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개념으로서 근자에 다시 再概念化되는 개념은 landscape, 즉 土地로서의 景觀이다. 그것은 生産하고, 居住하는 土地로서, 原生상태의 土地가 아니고 耕作되어 형질이 變化되고 가치가 增進된 土地이며, 내부의 경작행위와 형질변화와 가치증진에 의해서 비로소 그 범역이 뚜렷이 限定된 일단의 土地, 인공적 生態系인 土地(land)를 가리킨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景觀의 다의적 개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은 景觀을 景致로 보는 것이다. 이 개념은 16~17세기에 繪畫의 새로운 '장르'로 등장한 風景畫(landscape painting)의 영향에 기인한다. 특히 이탈리아 風景畫는 종래의 landscape가 지시하던 토지라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視覺的 감상을 위한 理想的 景致로 경관 개념의 내포가 변하는 데에, 그리고 네덜란드 風景畫는 landscape이라는 현대적 表記가 형성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landscape의 概念이 造景분야에 도입되어 風景式 庭園樣式-悅樂庭園의 한 대표형-을 만들어 낸다. 이로써 그림 속의 '자연스러운' 경치는 바로 그 그림같은 경치로 現實화되니, 상상 속의 경치는 그 상상에 따라 실제로 '만들어진(造) 경치(景)'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景觀을 '現實的文化景觀'보다는 '理想的自然景觀'으로서 해석하게 한다. 도시경관을 美觀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관개념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세에 와서는 범지구적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문제해결의 처방으로서 '生態學的 造景'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landscape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활장소이자 조건인 '環境'(environment)의 概念과 상호 통용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나아가서 이 생태계적 경관은 최초의 개념인 토지로 보는 경관과 상통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landscape는 '視覺的 鑑賞의 對象'인 景致(scenery)라는 통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 점은 비단 용어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造景의 역할과 영역의 정의에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의 하나로 남아 있다.

이처럼 土地, 景致, 그리고 造景이라는 명사가 主觀的 관점에서 실제로 보는 景觀이며, 또 지구상의 어느 특정한 장소의 한정된 범역을 지칭하는 個別的 景觀임에 비해서, 지리학적 景觀은 客觀的 관점에서 概念化한 경관이며, 개별적 경관의 특성들이 概括化 類型화된 景觀인 것이다.

또 '造景'이라고 보는 landscape는 인간의 의도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꾸며진 특정한 '人工景觀'을 지시하여 이 역시 주관적이면서 개별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리학적 landscape는 인간의 개입에 의해 자연상태로부터 변화한 경관 모두를 포용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은 人工景觀이기는 하여도 造景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計劃'이나 '設計'라는 합목적적 변화에 관한 전문적 의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普通景觀'(ordinary landscape)까지 내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landscape라는 개념은 인간과 생물의 실제생활이 영위되는 環境의 실체가 아니라, 環境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이탈한 觀者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靜觀할 경우에 형성되는 心像 내지 이미지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관 개념의 다의성에 입각하여 이제 都市景觀을 정의하여 보기로 하자.

2. '都市의 景致'(townscape)로 보는 都市景觀

도시경관의 다의적 개념 중에서 都市景觀을 townscape, 즉 '都市의 景致'로 보는 개념은 특히 도시의 물적 상황에 관심이 있는 도시설계가, 조경가, 건축가들이 주로 취하는 것이다.

1) 개념의 형성

都市景觀 개념의 하나는 "都市景觀은 인간의 視感覺의 대상이라는, 인식경로를 통하여 간파되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체와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은 주로 도시의 물적환경에 관심이 있는 설계

1) 이 주제에 관한 서술은 다음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황기원(1989), "景觀의 多義性에 관한 考察", 「한국조경학회지」, pp. 55-68.

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갖가지 사물과 공간의 형태, 배치, 구성, 외관, 분위기 등을 形式美 이론체계를 통하여 간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뿌리는 서양의 도시가 19세기의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급격하게 달라지는 과정에서 일단의 건축가들이 中世도시의 有機的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교란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건축물, 건축물 사이의 공간 등에 대한 美的 국면을 체계적으로 구명한 데에 있다.

그 대표적 이론가가 1889년에 *The Art of Building Cities,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 이라는 저서를 펴낸 Camillo Sitte (1843-1903)이다. 그는 이 책에서 주로 도시광장의 기능 및 비례, 그 광장에 서 있는 기념조형물과 교회들을 연구하여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밝혀 내었다. 그의 주장의 요체는 도시계획이라는 행위가 그 당시에 대두되던 機能的 技術이 아니라 創意的 藝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Sitte는 '都市景觀'이라는 명시적 표현을 한 바 없으나 그의 저서는 구미의 설계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니, 주요한 추종자들과 저서들을 열거하면 *Civic Art*(1911)라는 책을 쓴 Thomas H. Mawson, 1922년에 같은 이름의 책을 쓴 Werner Hegemann과 Elbert Peets, *Platz und Monument* (1923)를 쓴 A. E. Brinkmann, *Towns and Building* (1949)을 쓴 Steen Eiler Rasmussen, *Town Design* (1953)을 쓴 Frederick Gibberd 등이 있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 건축가 Le Corbusier 역시 젊은 시절에 유럽의 古都市들을 순방하면서 고건축물을 면밀히 연구하여 장차 대가로서 활약할 기틀을 쌓는 등(Le Corbusier. 1960. 43-184), 그 영향은 대단히 심대하다고 하겠다.

2) 용어의 유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개념은 Gordon Cullen이 1961년에 펴낸 *Townscape*라는 이름의 저서에서 비로소 townscape라는 述語를 갖게 된다. 이 용어의 유래에 대하여 Cullen 자신은 별다

른 설명이 없으나, 景觀을 뜻하는 landscape라는 용어에서 -scape가 접미사로 분리되어 도시를 뜻하는 영국식 표현인 town과 결합하여 都市의 景觀, 즉 town's landscape, 또는 landscape of town이라는 造語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²⁾ 1950년대에 발행된 Webster사전에는 이 용어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造語임을 알 수 있고, 최근의 영어사전에는 이 용어가 제대로 실려 있어 이제는 통용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都市風景(urban scene)이라는 용어가 Gordon Logie의 저서 *The Urban Scene* 등과 같은 책에서 보여지는데, 이것은 景觀의 視覺的 국면을 한층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개념의 요체

이와 같이 도시의 경치로 보는 도시경관(townscape) 개념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Cullen. 1961. 7-12; Gibberd. 1959. 9-20).

- 都市는 보여지는 사물이다. 즉 도시는 인간의 삶을 담아주는 공간, 또는 삶을 지지하는 환경일 뿐 아니라, 인간의 視知覺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 단순히 보여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Gibberd의 표현대로 "視覺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통하는 길이므로 도시는 인간의 능력이 닿는 한 아름다와야 한다"는 것이다.

- 도시가 시각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기능적인 면이 무시되거나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Sitte가 미적 이론을 따른 도시계획을 갈파한 다음 준비했으나 생전에 완성하지 못한 책이 '경제적 사회적 이론을 따른 도시계획'(City Planning According to Economic and Social Principles)이라는 사실로서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Gibberd는 "도시는 물적으로 완전하게 작동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건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쾌감을 주어야 한다. 기능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미적 감각과 융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자면, 도시를 구성하는 몇몇 주요한 요소들(공공건물, 대로, 공원 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 전체를 구성

2) -scape는 원래 접미사가 아니고, landscape라는 古語가 현대어 landscape로 바뀐 후에, 이와 유사한 술어가 만들어짐에 따라 접미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비슷한 용례로서 earthscape, seascape 등을 들 수 있다.

하는 '原料' (건물, 가로등, 도로포장, 포스터, 나무 등등)가 각각 기능적일 뿐 아니라 美的으로도 만족스러워야 한다.

● 그러나 도시경관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조합된 全體'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Gibberd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이론을 빌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그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Cullen은 townscape를 '關係 形成의 藝術'(art of relationship)이라고 하면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종합적 美를 강조하고 있다.

4) 視覺 중시와 空間 중시³⁾

하지만 이 도시경관(townscape) 개념에는 2가지 種概念이 혼재하고 있으며, 자주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은 視覺을 중시하는 태도와 空間 자체를 중시하는 태도로 대별된다.

● 視覺의 構成으로 보는 도시경관

도시경관을 視覺的 構成(visual composition)으로 보는 접근방법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건물이나 건조물 등 인공요소와, 산·수면·수목 등 자연요소가 인간의 눈에 지각되는 상황을 都市景觀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들 요소의 구조나 기능보다는 外觀(appearance)에 관심을 두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태뿐 아니라 미적 차원의 외관, 즉 美觀에 더 역점을 둔다. 또한 요소 낱낱의 외관보다는 이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집체적 형태(collective form)를 중시한다.

여기에서 외관이 갖는 의미는 이것이 감각, 지각 및 반응을 하기 위한 기초인 視覺資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은 그것을 인지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景觀分析의 차원에서는 협의로는 감각 내지 지각 차원에서 그쳐 버리기도 하고, 광의로는 그 반응-평가 및 선호-단계까지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발상을 잘 표현한 것으로는 Gordon Logie가 *The Urban Scene*이라는 책에서, 유럽도시의 패턴, 都市性을 표현하는 여러 장치(경단, 행진, 선형

투시구도, 대기 투시구도, 스케일 등), 가로장치물(조형물, 포장, 계단, 탑 등), 植生 등과 같은 구성물체, 그리고 구조물로 위요된 공간, 가로경관 등을 분석한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 空間的 構成으로 보는 도시경관

도시경관을 空間的 構成(spatial composition)으로 보는 접근방법은 아름다운 시지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시각적 구성론과 유사하면서도 도시를 구성하는 物體(mass)보다는 그 물체가 형성하는 空間 자체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도시는 그릇에 비유된다. 즉 우리의 생활을 담는 데에 그릇이 필요하며, 이러한 낱낱의 작은 그릇이 모여서 형성된 집합체가 도시공간이고, 이 공간을 質과 量의 기준으로 이해한 결과가 도시경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형화되는 도시경관은 건물이나 구조물과 같은 '물체'자체가 형성하는 '지어진 形態'(built form), 그러한 물체들이 모이게 될 때 형성되는 '外部空間形態', 도로공간에서 형성되는 '道路形態' 등이 있게 된다. 시각적 구성방식과 마찬가지로 도시경관을 이러한 유형요소로서 분해한 다음 각각의 공간에 대한 인간의 공간認知 상황을 고찰하게 되며, 이 역시 광의로는 평가단계까지 포함하게 된다.

1979년에 나온 Rob Krier의 *Urban Space*가 이러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유럽 도시의 공간을 유형화하고 그것의 변화양상을 면밀하게 구명하고 있으며, 이것이 공간적 구성론을 잘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Krier는 여기에서 都市空間(urban space; Stadtraum)을 '도시 안에 있는 건물 사이의 공간'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모든 옥외 공간을 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들이 공간의 미적 국면을 다루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서 Krier는 엄밀한 미적 요인과 혼동된 정서적 요인을 구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밝힌다. 특히 그는 도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美的分析이 趣向(taste)에 관한 주관적 질문으로 誤導되는 경향을 경계하고 있다.

3) 이 주제에 관한 이론 및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황기원·유병림·양윤재·김기호(1984), "都市景觀 解釋技法의 比較分析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15,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를 참조하라.

3. 文化地理學에서 보는 都市景觀

都市景觀을 urban landscape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진다. 그 하나는 지리학에서 文化景觀論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태학에서 景觀生態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경관생태적 국면이 바로 경관을 토지로 보는 개념과 상응한다.⁴⁾

1) 개념의 정의 및 연원

지리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都市景觀(urban landscape, Stadtlandschaft)이라는 용어는 '都市의 物的 形態와 外觀'으로 정의되며, 내용상으로 볼 때 都市形態(urban morphology) 개념과 동의어라고 하여도 거의 무방하다(Conzen, 1981, 77-79).

지리학중 특히 도시지리학에서 urban landscape의 용례는 영국에서 활동한 독일학자 M. R. G. Conzen이 주도했던 都市形態의 연구에서 나타난다. 도시경관을 지시함에 있어 엄밀하게 보면 urban landscape라는 용어는 Conzen의 후배학자인 J. W. R. Whitehand가 쓰는 용어이고, Conzen 자신은 urban landscape와 townscape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보면서도 후자를 주로 쓰고 있다. 이는 都市景觀으로 해석되는 독일어 Stadtlandschaft를 2가지로 번역할 수 있고, 그가 활약한 영국에서는 townscape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都市景觀 개념의 연원은 유럽 근대지리학의 한 유파인 문화지리학의 주요 개념인 文化景觀에 근거하고 있다. 이 文化景觀 개념은 유럽 지리학계를 한때 풍미하던 것으로서, Conzen은 도시라는 정주지가 공간적 시간적 관점뿐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주변과 뚜렷이 구별되고, 따라서 그 형태 역시 주변과 구별될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밀도가 높고 인간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表出 또는 內在하고 있다는 점에서 都市景觀을 文化景觀의 명백한 한 유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Conzen, 1981, 77-85).

그러므로 都市景觀의 개념 형성과 연구방법론의 연

원은 지리학에서의 景觀일반에 관한 개념 형성과 연구방법론에 근거하고 있어 상통하는 바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탐구대상이 다르므로 해서 연구방법론에 있어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좀더 알아 보기 위해서, 먼저 지리학에서 景觀, 文化景觀, 그리고 都市景觀의 개념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景 觀

19세기에 근대지리학이 태동하던 무렵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景觀의 개념은 회화의 한 장르인 풍경화의 영향을 받아서 '景致'라는 개념이 추가 되고 있었다. 이경우의 景觀은 美的 국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는 사람의 主觀性, 보여진 경치의 個性이 불가피하여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서는 부적당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리학자들이 이 용어를 채용하고 경관 연구에 주목하게 된 것은 종전의 경관개념 자체에 흥미를 느껴서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고민인 다원주의 環境決定論을 탈피하기 위한 출구를 찾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양의 지리학은 '르네상스'를 지나, '地理上의 發見'시대를 거치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Alexander von Humboldt와 Karl Ritter 등이 지리학의 과학화를 시도한다. 이들이 景觀의 개념 형성에 미친 영향은 '독특하고 구획되는 지표면의 영역', 또는 '地理的 實體單位'인 Individuen 개념을 제안하였고, 지구 표면이 이러한 개별단위의 복합이라는 발상이었다(Dickinson, 1970, 15-19).

한편 20세기초에 독일 및 불란서의 지리학계에는 종전의 환경론적 접근방법을 지양하는 경관(landscape, Landschaft)論이 Otto Schluter, Jean Brunhes, Carl Sauer 등의 연구를 통해 등장한다. 이 방법론은 종전에 지질, 지형, 기후, 식생 등을 연구함에 있어 채택된 분류와 생성과정 연구의 객관성을 지표면의 可視的 外觀(visible landscape scene)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경관연구는 먼저 景觀의 개별적 현상을 평가하고, 景觀 속에 동일현상이 지역적으로 어떻

4) 土地로 보는 景觀의 개념은 원래의 정의 즉 중세의 莊園 안에 있는 토지인 landscape를 따른다면 현대의 도시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개념의 본질은 莊園이 아니라, 文化화된, 그리고 한정된 토지라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하므로, 景觀의 현상을 분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현상이 공간 배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구명하는 작업인 것이다(Dickinson. 1970. 25-29 ; Harvey. 1969. 114-115).

현대 지리학에서 景觀을 형태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주요 탐구대상이자 도구로서 설정하게 된 것은 19세기말경 독일에서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Carl Sauer가 1925년에 '景觀의 形態學' (Morphology of Landscape)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동된다. Sauer는 그 당시 풍미하던 환경결정론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했으며, 그것에 대한 영감을 독일 지리학자들의 Landschaft 연구에서 발견하였다고 본다.

특히 Carl Sauer는 景觀을 '특정한 觀者が 보는 실제 景致가 아니라, 수많은 개별 경치의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概括化'로 재개념화하였다. 즉 景觀은 '물리적 문화적형태의 뚜렷한 결합으로 구성된 地域'이며, 그것은 인식 가능한 구성, 한계와 다른 景觀과의 발생론적 관계에 근거한 客觀的 正體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경관 연구에서 인간이 물적 환경을 재형성하는 역할과, 물적 경관을 文化景觀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다윈주의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벗어났다.

Sauer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명제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은 時間의 사실이고, 그것들의 제후관계는 기간(period)이라는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학의 사실이라는 것은 場所의 사실이고, 그것들의 제후관계는 景觀이다'라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 관점을 따르면 경관은 '물적이고 문화적인 형태의 분명한 제후관계로서 구성된 한 구역'이라고 정의되며, 그 경관은 다른 경관에 비해서 구성, 한계 및 유형적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정체성을 가진다.

Sauer는 경관이라는 개념을 대중적 관념, 즉 한 특정한 관찰자가 본 실제하는 경치라는 관념에 대체하여, 여러 개별적 경치를 관찰한 것으로부터 일반화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auer. 1925.

315-350). 다른 말로 표현하면 Sauer의 주장에 내재하고 있는 가정은 그런 방식으로 연구되는 국면들은 특징이 있어야 하고, 한 패턴으로 집단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귀납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의되는 경관은 일반적 시리즈 속의 한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文化景觀

이에 덧붙여 Sauer는 경관을 발생론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고, 한 경관의 구조적 단위들은 인간의 활동이 개입되기 전의 구역상황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그로부터 전개되는 발전적 계기 속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상은 지리학이 경관의 물적 요소들과 문화적 요소들이 통합된 현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경관의 내용은 인간에게 중요한 지역의 물리적 질과, 그 인간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형태와, 물적 배경에 있는 사실과 문화에 있는 사실에서 발견된다고 본다(Sauer. 1925. 315-350). 이 원리에 관하여는 Krebs가 'Natur und Kultur landschaft(自然 및 文化景觀)'이라는 논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관연구의 본질적 임무는 '自然景觀'이 '文化景觀'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출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원생경관이며, 文化景觀은 그것이 어떤 수준에 있든지간에 인간의 영향력이 개입하여 변화를 초래한 인공경관을 뜻한다. 그러나 여러 연구와 토의를 거치면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구별은 자연환경의 국면이 변화되었지만 소멸되거나 완전히 통제되는 상태는 아닌 '野生'(wild) 또는 '原始'(primitive) 경관을 자연경관이라고 보고, '문화화된'(cultivated) 또는 '인공적'(artificial) 경관을 文化景觀으로 보는 것이다.⁵⁾

4) 都市景觀

한편 도시의 형태가 진화하는 현상을 그 안에 내재하는 형성과정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형태론적 접근(morphological approach)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걸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학계에서

5) 自然景觀(natural landscape)이라는 개념은 독일에서는 Naturlandschaft라는 용어로서, 프랑스에서는 paysage naturel이라는 용어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것은 자연경관으로부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되어 온 인공의 환경이나, 인간의 흔적이 전혀 없는 원생의 자연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문화경관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Schlüter, Hassinger, Fritz 등의 착상과 연구를 거치면서 대두된다(Whitehand, 1981. 1-7).

특히 Schlüter는 문화지리학(Kulturgeographie)의 연구과제가 '文化景觀의 形態學'임을 주장한다. 그는 지상에 있는 가시적이고 가촉적인 인공형태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역사의 과정과 자연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목적과 행위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포괄적이고 기능적으로 설명하자고 주장한다. 그의 논지는 형태를 단순하게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와 기능과 발전(역사)의 세가지 국면을 묶어서 해석하자는 데에 귀결한다. 그는 도시의 물적 형태와 외관인 '都市景觀'을 도시지리학의 주요 연구과제로 제시하며, 이때 都市景觀은 文化景觀의 범주 속에 들어 있는 뚜렷한 한 요소이며, 그 자체가 어떤 지역적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Whitehand, 1981. 2).

Conzen이 都市景觀에서 주목하는 것은 都市平面(town plan), 建物類型(building type) 내지 建物組織(building fabric), 都市土地利用이라는 3가지 국면이고, 그중에서도 도시평면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평면은 다시 街路 및 街路體系, 筆地와 그 筆地の 패턴, 이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는 建物の 配列이라는 각각 구분되면서도 통합적인 평면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5) 景觀의 문화적 해석

지리학의 범주에서 바라다 보는 景觀연구는 근본적으로 景觀요소들간의 어떠한 규칙성이나 인과관계를 하나의 구조로서 파악 내지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속성상 다분히 靜態의인 설명으로 그치기 쉬운 점이 보인다.

이것에 대비하여 景觀이라고 하는 대상을 變化나 價値, 혹은 인간의 態度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들은 景觀이라고 하는 形態의 결정인자를 바로 그러한 요소로 보게 된다. 즉 變化는 景觀의 연속과 단절, 혹은 형성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價値라는 요소는 景觀의 選好 혹은 상대적인 문화의 象徴과 表象으로 보기도 하며, 한편으로 態度라는 관점에서는 景觀에 대한 일종의 애정, 경외와 두려움, 혹은 친근함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반응 내지 인간의 景觀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은 종래의 景觀이론가들과는 달리 만들어진 景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景觀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심미적·사회적·문화적 맥락 및 의미 부여 과정과 동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景觀을 풍물로서, 문화적 환경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미국의 景觀해석가 J. B. Jackson이다. 그는 景觀의 특질을 유일성(uniqness) 내지 독자성에 두고, 미국의 현대적 景觀을 설명하는 데 그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그는 특히 社會的 景觀(social landscape)이나 公共景觀(public landscape)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를 景觀에서의 境界, 고속도로, 공공의 집회장소, 기념물 등으로 보고 이들이 현대의 미국사람들의 인식과 생활에 여하히 개재되고 있는가를 다분히 비평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의 景觀에 대한 견해는 매우 독특하며, 현대 미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그 의미를 간과하기 쉬운 鄉土的 景觀(vernacular landscape)의 의미를 부각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景觀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 미래의 환경설계가가 이에 대해 적절한 관심과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Jackson, 1980; 1984).

이러한 연구는 景觀이라는 대상을 필지나 토지, 건물, 그리고 물리적인 척도로서 깊이와 높이, 혹은 바라다 보는 仰角이나 俯角등과 같은 구체적인 물상적 특질로서 설명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景觀을 사회적인 맥락속에서 보편성과 유일성, 독자성과 개별성, 그리고 공공성과 같은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景觀변화의 속성을 중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변화의 구조로서 景觀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극히 최근에야 관심을 갖는 연구분야이다.

4. 景觀生態學에서 보는 都市景觀

1) 景觀生態學과 都市景觀

景觀生態學에서 사용하는 도시경관(urban landscape)은 도시의 景觀이 내포하거나 표출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생태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에 근거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그

대표적 용례로서는 Richard T. T. Forman과 Michel Gordon이 1986년에 쓴 *Landscape Ecology*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경관은 인간의 간섭이 배제되거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自然景觀에서 점차 인간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서 변모한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Forman & Gordon, 1986. 286-303).

일반생태학에서 다루는 환경은 '한정된 空間'을 가지며, 그 공간의 경계는 내부적 동질성에 의거하여 설정된다. 그것은 어느 한 同質的 空間單位 안에서 일어나는 식물·동물·대기·물·토양간의 '垂直的' 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치중한다. 따라서 더욱 현실적으로 생태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즉 여러 생태계 사이의 생태적 현상을 '水平的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생태계보다 더 큰 공간적 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⁶⁾

'景觀'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연구목적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 즉 여러 공간적 단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인 景觀生態學이라는 연구분야에서 도구개념이자 목적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景觀인 것이다.

2) 景 觀

Forman과 Gordon은 景觀을 "상호 작용하는 생태계의 집합으로 구성된 이질적 陸域(육지구역)으로서, 광역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된다"라고 정의한다.⁷⁾ 이 정의를 부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육지 구역인 景觀

景觀을 '육지'(land) 구역이라는 함은, 景觀이 바다를 제외한 육지부에 국한된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바다를 제외하였다는 점은 그다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육지부 내에 존

재하거나 유동하고 있는 내수면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景觀이 그냥 육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區域'(area)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 景觀은 구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크기나 면적이 한정되고, 어떤 경계를 지나면 다른 景觀이 된다는 것이다. 스케일면에서 景觀보다 큰 단위는 '地域'(region)이라는 공간단위이다. 어느 한 지역의 면적은 기후·지형·생물·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의 복합체에 의해 결정된다.⁸⁾

다시 景觀으로 논의를 되돌려 보면, 景觀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매우 까다로움을 알 수 있다. 景觀생태학자들이 景觀의 경계 설정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항공사진 판독방법이다. 이는 실제 景觀을 구성하는 지표면을 답사하면서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사물에 아주 가깝게 다가서서 '接寫 攝影'(close-up viewing) 내지 '顯微攝影'(microscopic viewing) 하는 미시적이고 즉지적 방법으로서 景觀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획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景觀의 경계를 찾아내는 작업에는 이와는 반대로 대상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시적으로 조감하는 '遠望'(distant viewing) 및 '望遠'(telescopic viewing)의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⁹⁾

● 상호 작용하는 生態系의 집합인 景觀

景觀 개념을 구성하는 명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수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그 생태계들은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景觀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景觀은 이웃한 다른 景觀과는 경계를 사이에 두고 구별되므로 이 차원에서는 외향적으로 이질성을 보유한다. 바로 이 점이 수평적 연구를 하는 경

6) urban landscape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 景觀生態學(Landschaftsökologie, landscape ecology)을 이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인 C. Troll은 "한 지역에서 상이한 공간적 단위를 지배하는 생리적 생물적 관계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한다.

7) Landscape can be defined as a heterogeneous land area composed of a cluster of interacting ecosystems that is repeated in similar form throughout.

8) 예를 들어 미국의 New England 지역은 高山景觀, 임상이 풍부한 경사지 景觀, 농촌 景觀, 근교 景觀, 도시 景觀들로 구성된다

9) 이와 관련하여 Zonneveld는 景觀을 "지표면의 일부 공간으로서, 암석·물대기·식물·동물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한 복합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의 地相學的 형태가 식별 가능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景觀이 '地相學的' 형태의 차이에 의해 식별 가능한 단위라는 것이다. 地相學(physiognomy)이라는 용어는 원래 인간의 용모나 신체 구조와 심리적·성격적 특징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관상학적 연구방법을 지칭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관상학 자체가 과학이 아니라고 치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학 역시 지표를 구성하는 외관만을 소재로 하고 있으므로 지형학(geomorphology 또는 topography)에 비하여 비과학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가 구태어 지상학이라는 비과학적 표현을 하는 까닭은 지형 연구처럼 지표뿐 아니라 지표 아래의 상황까지 탐구하지 않고 지표의 상황만 보더라도 단위 景觀의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관생태학이 수직적 연구를 하는 일반생태학과 구별되는 점이다.

- 광역적으로 반복하여 존재하는 경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생태계로 이루어진 景觀은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반복하여 존재할 수가 있다. 이 점은 화가들의 景觀이 유일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으로 보는 것임에 비해서, 지리학자들이 그러한 유일성과 주관성을 극복하고 景觀을 객관화하려고 한 접근방법과 상통한다.

따라서 景觀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여러 기준에서 서로 유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으며, 그것들은 지표 상에 반복하여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패턴'과 같은 속성을 가진다.

3) 景觀要素

- 다양한 용어

그러면 이제 하나의 景觀 내부로 들어가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 보기로 하자. 景觀생태학에서는 한 景觀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ecotope, biotope, geotope, landscape unit, landscape cell, facies, habitat, site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중에서 景觀要素(landscape element)라는 용어가 '땅 위에 있는 기본적인,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생태적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이해하기에 가장 편리하다. 생태학적으로 보면 이 景觀요소 역시 생태계라고 간주될 수 있으나, 이를 단순히 景觀요소라고 부르기로 하는 것이다.¹⁰⁾

- 景觀요소의 분류

景觀요소의 분류는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니, 하나는 길이라든가, 농토라든가, 집이라든가, 숲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인지하는 지리학적 환경단위를 귀납적으로 유형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의 景觀유형을 추상화하면 한 景觀을 구성하는 景觀요소에 3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고 본다. 그것들은 patch, corridor, matrix다.¹¹⁾ patch는 조각, 폐미 등과 같은 어의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지표상에 나타나는 非線形的 景觀요소 내지 面

的인 景觀요소다. 그리고 corridor는 이 역시 통로, 길 등과 같은 어의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線的 景觀요소이며, matrix는 이러한 patch나 corridor를 둘러싸고 있는 背景이 되는 주변환경에 해당한다.

한편 景觀요소도 景觀에 비하면 동질적이지만, 요소 차원에서 보면 역시 이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세분하여 가장 작으면서 동질적 단위를 추출할 수 있다. 이것을 Forman과 Gordon은 모자이크 예술에서 가장 작은 세공단위를 일컫는 용어를 빌어 tessera로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볼 때 하나의 景觀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는 이격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景觀이 지표상에 수평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景觀의 집합은 '地域'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景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景觀요소로 세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세분할 수 없는 최소단위인 tessera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위계로 환산하는 사고의 틀은 景觀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하다. 이 사고의 틀은 일종의 시스템이론에 입각하고 있으며, 위계 전체는 잘 짜여 있지만 한 차원내의 단위 위계는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한 景觀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분해하게 되면 상당히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임의성이 개입하게 된다는 점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4) 景觀發生

- 요인

景觀發生(landscape development) 또는 景觀형성은 한 景觀의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3가지 메카니즘의 결과다. 그 3가지 메카니즘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특정한 지형학적 과정, 유기체의 서식(colonization) 패턴, 단기간에 일어나는 개별 생태계의 국지적 교란이다. 그러므로 景觀은 '상호 작용하는 생태계들, 지형, 교란영역의 집합이 공간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반복됨으로써 규정되는 명백하고 측정 가능한 단위'로 정의된다.¹²⁾

10) 景觀요소는 항공사진에서 판독 가능하며, 폭이 10m에서 1km 남짓하다고 본다.

11) 景觀생태학분야에서 이들 용어에 대한 통일된 한글표기가 아직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原語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A distinct, measurable unit defined by its recognizable and spatially repetitive cluster of interacting ecosystems, geomorphology, and disturbance regimes.

- 경관 발생에 있어 인간의 역할

- 자연적 리듬의 조정

교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경관의 수평적 구조는 동질성을 향해 진행된다. 이때 적절한 교란이 나타나면 이질성이 급속도로 증가되는데, 교란이 극심해지면 이질성은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인간은 대개 자연적 교란의 리듬을 조정하고, 경관 조정의 도구를 다양화하며, 인구 집적 증가, 정치 발전과 화석연료 에너지의 투입과 연관한 인공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경관의 이질성을 증가시킨다. 인간의 영향은 patch, corridor 및 matrix의 변화에 뚜렷한 패턴을 야기시킨다.

- 경관 조정의 정도

인간의 역할에 의해 조정되는 경관은 인간의 영향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분화된다. 가장 원생적인 단계는 自然景觀이며, 여기에서 점차 관리된 경관(managed landscape), 경작된 경관(cultivated landscape), 近郊景觀(suburban landscape), 都市景觀, 巨帶都市(megalopolis)의 순으로 조정의 정도, 즉 인공화의 정도가 증가한다고 본다.

5) 都市景觀의 정의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경관생태학에서 정의하는 도시경관, 즉 urban landscape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 인간의 조정에 의해 형성된 경관

도시경관의 가장 큰 특성은 자연경관이 인간의 조정에 의해 대규모로 변화되어 비교적 고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점이다. 이 개념은 문화지리학에서 제시하는 문화경관의 개념과 상통하는 바, 문화경관의 한 유형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집적은 특히 근교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결과의 하나이다.

- 복수의 生態系 내지 景觀의 포용

景觀이라는 개념은 도시의 차원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엄밀하게는 경관의 차원이기보다는 地域의 차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도시구역내에서도 자연경관, 관리된 경관, 경작된 경관, 근교경관을 내포하기도 하므로,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복수의 생태계이기보다는 복수의 경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는 地域景觀은 대도시권 전체를 포용하는 개념으로, 都市景觀은 지역경관을 매트릭스로 하여 그 내부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다.

Ⅲ. 都市景觀 解釋方法論의 설정

景觀뿐 아니라 都市景觀 역시 다의적이며, 각각 고유한 자족적 연구영역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특정 개념에 국한된 정의를 하기 보다는,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적합하게 여러 개념을 조합하는 경로를 취하게 된다.

1. '過程'으로 보는 都市景觀

1) 景觀과 過程

이 연구에서 첫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景觀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過程'이다. 景觀, 특히 都市景觀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개념의 논거는 문화지리학에서 제시하는 文化景觀 및 歷史景觀이라는 개념에 있다. 즉 都市景觀은 自然景觀이 변화한 文化景觀이며, 都市景觀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가 누적되어 있는 歷史景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景觀의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時間이라는 차원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크게 2가지 연구방법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살린 通時的 방법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 景觀의 단면을 고찰하거나, 또는 현재의 단면에 압축되어 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재생하고자 하는 共時的(synchronic) 방법이다. 따라서 전자는 동태적이고 해석적이며, 후자는 정태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상대적 차이를 가지게 된다.

都市景觀의 연구에 있어 공시적·정태적 연구방법은 현 시점에서 도시의 형태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도시는 본래적으로 변화가 많으며, 그 변화가 누적되어 오는 歷史景觀이라는 국면이 있으므로, 통시적·동태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都市景觀에 있어서 통시적 연구라 함은 도시의 발생초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해 온 都市景觀을 연구하는 것이며, 동태적 연구라 함은 그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뿐 아니라, 그 변

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景觀過程을 연구하기 위하여 통시적 고찰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2) 素景觀의 설정

통시적으로 보는 景觀과정연구에서 우선 필요한 작업은 그것에 내재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景觀의 발생단계의 상황, 또는 변화의 소지가 되는 景觀의 상황을 도출하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화된 도시景觀의 바탕이 되는 素景觀(original landscape)은 문화지리학 및 경관생태학에서 제시하는 自然景觀(natural landscape)이다. 자연경관은 많은 문화경관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原始景觀(primitive landscape, Urlandschaft)이기 보다는 인간에 의한 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본다. 즉 인간이 한 장소에 정착하여 원래의 자연상태를 영역적으로 변용되기 직전의 상태를 自然景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景觀에 따라서는 아주 오랜 옛날에 인간이 정주하다가 버린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자연상태에 내지 자연상태에 가깝게 회복된 景觀도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素景觀을 정의한다면, 필연적으로 景觀에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契機'(moment)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자연상태의 景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나브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것이 자연적인 災害 이든 인위적인 役事이든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계기는 다른 말로는 경관형성과 변화의 '要因'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계기를 도출하여 도시경관의 素景觀 상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時系列의 설정

도시경관과정의 통시적 연구에 있어 우선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변화를 파악할 시간 차원, 즉 시계열을 설정하는 것이다. 景觀의 변화나 역사의 흐름이 단선적 시간개념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변화의 요인이 어떤 특정한 계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설적 논리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素景觀이 유지되던 시기, 素景觀에 최초로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 그후 다른 큰 변화

가 일어나는 시기 등을 시점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2. 景觀 형성과 변화의 '要因'

1) 要因과 動態의 해석

이와 같은 時系列의 설정이 도시경관을 通時的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이라면 자연경관에서 발생하여 계속 변화하는 도시경관의 변화要因을 설정하는 것은 도시경관을 動態的으로 해석하기 위한 틀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발생하여 변화하는 현상 자체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그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는 작업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이는 도시의 형성과 변화 현상 자체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현상에 작용하는 요인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부분은 인과물에 입각하여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 결과인 현상과의 관계를 설명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연에 가까운 사건에 의해 변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2) 契機와 要因

경관의 형성과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 논의한 계기라는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다. 경관생태학에서 경관발생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3가지 메카니즘, 즉 장기간에 일어나는 특정한 지형학적 과정, 유기체의 서식 패턴, 단기간에 일어나는 개별 생태계의 국지적 교란이라는 요인은 자연생태계의 상황뿐 아니라 도시와 같은 인공적 상황에까지 확장,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볼 수가 있다.

즉 앞의 3가지 메카니즘은 우선 자연생태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물질 환경이 경관의 전제가 됨을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형학적 과정이라는 것은 인간 및 생물의 존재를 제외하고서라도 氣象·地質·水文·水質·土壤 등 자연요소의 작용에 의해 물질 환경이 형성되고 변화함을 가리킨다(任勝彬, 1991. 31-37).

이러한 형성과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른바 '지질학적 시간'(geological time)으로 표현되는 대단히 장구한 시간이므로, 그 변화는 대단히 큰 범위로, 큰 규모로 진행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2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러한

물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을 위시한 생물의 서식에 따른 물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거시적·장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뿐 아니라, 미시적·단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까지 포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 자체의 변화일 뿐 아니라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 변화라는 속성을 갖게 된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로 환경의 힘이 지배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물의 힘이 지배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며, 두 세력권이 중첩되거나 교차되기도 한다.

또 하나는 그 변화가 지형학적 과정이라는 개념이 지시하듯 '地形'이라는 환경의 가시적·가촉적 국면에 표현된다는 것이다. 지형은 다양한 변화가 초래된 물적 환경의 '外觀'이지만, 자연환경의 외관에만 그치지 않고, 생물 중에서 특히 인간의 힘이 작용한 인공 환경의 외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외관에만 그치지 않고 그 변화의 '現場'이기도 하다. 이 외관은 단순한 표피에 그치지 않고, 그 밑에 내재하는 환경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地形이라는 것은 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물적 환경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관과 사실상 同義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townscape 내지 문화지리학적 urban landscape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각적 구성론 내지의 사전달론의 논리와 상통한다.

3) 發生能(developmental potency)

이와 같은 계기와 요인이 다분히 후천적인 것이라면, 환경 내지 경관 자체의 선천적 속성이 변화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표출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경관 연구에 의미가 있다.

도시경관의 발생론적 고찰에는 생물적 형태론의 이론 중 發生能 내지 豫定能 이론이 유용하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어떤 부위가 발생단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능한 발생운명의 총체를 發生能이라고 하는데, 발생 초기에는 상당히 폭넓은 발생운명을 지니고 있으나, 발생이 진전함에 따라서 점차 한정되어 결국 가능한 운명 중의 하나가 현실적 운명이 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다시 發展形態學 내지 形態發展論(morphogenesis), 즉 발생능이 있는 유기체의 유전적 청사진과 환경조건이 반응하면서 한 개체가 성장하는 이론으로 집약된다.

모든 도시에 있어 도시발생의 요인은 다양하고, 그 과정 역시 복합적이어서 발생능이 발휘되는 양상과 정도는 뚜렷하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다.

3. 景觀變化의 內容과 形態

그러면 이와 같은 경관과정과 요인을 고찰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관찰과 해석의 대상이 되는 그 내용, 즉 경관의 어떤 국면을 고찰할 것인가를 살펴보자. townscape로 보는 도시경관론에서는 도시의 물적 환경을 공간과 물체로 구분하고 그것의 시각적·공간적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문화지리학적 urban landscape로 보는 도시경관론에서는 도시의 도시평면, 건물유형 및 토지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물적 형태와 외관을 고찰하며, 경관생태학적 도시경관론에서는 경관의 구성요소를 미시적 및 중시적 단위로 구분하고 그 발생과정과 결과로 나타나는 생태적 현상을 고찰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경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성단위의 규모

앞의 이론에서 상이하게 제시되는 것중의 하나는 景觀을 구성하는 單位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어느 사물을 인간이 인식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뭉뚱그려진 전체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대상을 분할 내지 구분하고, 그 부분 및 부분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전체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범과학적 파라다임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대상이 자연과학적 탐구의 대상인 경우에는 옳음과 그름이 있겠지만, 문화과학적 대상이거나 철학적 대상인 경우에는 옳고 그름보다는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都市景觀이라는 대상이 다분히 문화과학적 탐구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이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과학적 嚴正性보다는 설명과 해석을 위한 有意性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경관의 구성단위를 분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2) 景觀과 形態

여러 과학에 적용되는 형태학의 연원은 생물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생물과학의 한 분야인 형태학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都市景觀論 역시 주된 관심

이 결국 도시의 形態에 귀착한다고 본다면, 생물형태학의 개념구조나 이론체계에서 원용하는 바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생물형태학에서는 복수의 개체가 모인 개체군을 다루지 않고 개체 단위를 다루고 있으며, 다만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어떻게 분할하느냐가 이슈가 된다. 대개 형태학에서 한 개체의 전체를 다루는 것은 解剖學(anatomy)으로, 개체의 부분을 다루는 것은 그 부분의 위계에 따라서 組織學(histology) 또는 細胞學(cytology)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도시경관 내지 도시형태에 적용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경관의 구성요소는 해부학 내지 조직학의 수준에 국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포 단위에 해당하는 筆地, 그 필지에 지어진 건축물 개개 단위에 대한 고찰은 하지 않는다. 이 점은 도시경관 연구의 특징이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사물(어떻게 분할하든지 간에) 낱낱의 형태 보다는 이것들이 모인 집체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상응한다.

아울러 경관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는 형태학에서 시간의 흐름을 감안한 동태적 연구인 발생학 내지 발전형태학과 상응한다. 發生學(embryology)은 발생과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변화를 묘사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반면에, 發展形態學(developmental embryology) 내지 形態發展論(morphogenesis)은 그 변화의 機制에 관심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Ⅲ. 結 論

1. 都市景觀 解釋方法論의 반추

1) 景觀의 形成과 變化

모든 사물이 변화한다고 상정한다면,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변화의 과정과 요인과 내용이 다. 過程은 시간을 축으로 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의 記錄이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經路이기도 하다. 변화의 과정을 고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변화의 始初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論題에 부딪치게 된다.

경관 연구에 있어 文化景觀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러한 변화가 일어난 경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에 대응한 自然景觀이라는 개념은 문화경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素景觀이다. 이 연구에서는 素景觀의 상태를 지구 생성의 시기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간에 의한 문화화의 흔적이 크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는 바, 이는 문화경관론 내지 문화지리학에서 論理와 實際의 대조를 통하여 설정한 개념이므로 그다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素景觀이라고 하여 시제상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든가 반대로 완전하다든가 하는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어느 시점의 상태만 그렇다고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은 문화경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景觀 변화의 要因과 機制

다음으로 고찰하게 되는 것은 경관과정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要因, 그리고 그러한 요인이 작용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機制(mechanism)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하게 되는 경관변화의 요인과 기제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로 구성된다.

경관 변화에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因果論보다는 因緣果報論에 따르며, 아울러 蓋然論이 개입하게 된다. 여러가지 변화관 중에서 경관변화 기제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因緣果報論은 다분히 불교적 논리이기는 하지만, 한번 고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인과론적 변화관은 모든 變化에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것은 인과관계로서 걸려있을 뿐 아니라, 한 變化의 결과가 또 다른 變化의 원인이어서 묶여있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는 있는 그대로 맺어지지 않는다. 원인은 적절한 환경과 상황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즉 緣이 주어져야만 결과를 맺는다. 이러한 因果應報의 變化觀은 단순한 인과론에 비해서 緣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것이다. 즉 하나의 원인은 하나의 결과를 맺으나 원인에 작용하는 緣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여러가지 결과를 맺을 수 있으며, 또 다른 결과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 또 서로 다른 여러가지 결과를 맺을 뿐 아니라, 그 결과중의 하나가 다시 원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관의 변화관은 모든 變化라는 것이 과

거에 이미 설정한 목적을 향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目的論的 변화관과 다른데,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라든가 환경의 작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變化觀은 그 바탕에 시간을 일직선의 축을 따라 착착,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본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또 그 시간축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즉 '變化=進歩'라는 대단히 편한 사고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새로운 경관일수록 좋은 경관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역사경관의 입지를 부정해 버린다는 점도 들 수 있다.

3) 경관의 解釋과 讀解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景觀을 解釋하는 작업은 M. T. Watts와 P. F. Lewis의 주장대로 책을 독해하는 작업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景觀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저술한 공동의 자서전이고, 무의식 속에서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진실된 수준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가치, 好惡, 회로에락이 기록된 경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읽을 수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경관을 읽는다는 일은 책을 읽는 일만큼 쉽지가 않다. 景觀은 著者が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럿 있으며,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고쳐쓰고, 갈아끼고, 또 찢어버린 책이다. 그리고 줄거리나, 주장이나, 문법이나, 문장술도 일정하지 않으며, 인쇄본이 아닌 필사본이며, 유일본 내지 희귀본이다. 이 景觀이라는 책은 불특정 다수의 공유물이므로 누구나 집필과 편집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보태거나 뺄 수도 있으며, 개칠과 낙서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관은 책은 책이되, 쉽게 읽게끔 만들어진 책은 아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경관이라는 책을 읽고 이해하려면 보통 이상의 독해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우선 가지각색의 문법과 문장술에도 통달해야 하고, 古語·死語·隱語·外來語 등에도 익숙해야 할 것이며, 뒤죽박죽 빠뜨리고 덧붙인 부분을 꼼꼼히 헤쳐 가면서 숨어있는 원래의 줄거리를 캐내어야 할 것이다. 명필의 글씨에 못지않게 어린이의 글씨도 중요하고, 인쇄된 글에 못지않게 은밀히 적어놓은 몇 마디 낙서도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확대경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을 덮어놓고 명상과 사색을 통해

서 숨은 뜻을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읽기 어려운 책을 읽는 일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없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자면 실력도 필요할 뿐 아니라, 읽고자 하는 의욕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시도해 본 景觀의 解釋은 이와 같은 景觀讀解의 관점에서 읽는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는 방법도 어떤 일정한 황금률이 없듯 경관을 읽는 방법도 역시 그러하리라고 본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경관을 分析하는 방법은 책과 글의 語彙와 文法을 따지는 작업에 치중하는 것이고, 경관을 解釋하는 방법은 책과 글의 意味를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2. 期待效果 및 活用方案

이 연구는 첫째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종전까지 주로 사용하던 近接·分析의 접근 대신에 鳥瞰·解釋이라는 다른 접근방법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특히 都市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변화가 심한 대상이므로 거시적·직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방법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방법론에 有意性이 있다면, 이것은 학계내의 엄정한 논리 전개에 기초를 두는 연구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모호하고 다의적인 生活環境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讀解術의 개발이라는 점에서 활용 방안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학계 내에서도 조경·도시설계·건축 등 대상을 더욱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사물의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설계의 기초기법으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景觀이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의 중요한 환경자원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원의 의미와 개발과 보존 등에 이르는 일련의 방법을 강구하게 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都市景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경관을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며, 이러한 태도와 시각은 점차 우리가 애끼고 보존하며,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연구, 예컨대 그 지방의 향토사, 향토문화연구 분야에 하나의 유용한 방향을 제시하여, 그러한 연구가 더욱더 기초적으

로 활성화되게 하는 일종의 틀과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그러한 향토연구를 통해 都市景觀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체계화되고, 이것이 다시 도시경관연구에 환류되어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결국 새로운 자원이 창출되게 하는 중요한 효과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에 하나의 중심적인 視覺과 思考의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강홍빈(1986), "한국 도시화의 반추: 집합논리와 도시형태", 「도시문제」, 제21권.
2. 김기호(1984), "공간구성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15.
3. 배형민(1985), "도시형태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4. 양윤재(1984), "시각구성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15.
5. 이규목(1982), "도시경관 구성에 관한 시각적 연구", 「국토계획」, 제36호.
6. 이명희(1990), "의미체계로서의 도시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조경학 석사학위 논문.
7. 임승빈(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8. 유병림(1984), "도시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전달매체로의 관점", 「환경논총」, 15.
9. 유제현(1991), "한국의 도시형태학에 관한 기초적 연구", 「국토계획」, 제59호.
10. 정기호(1986), "자연과 인간의식과의 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의 내적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14(2).
11. 황기원(1984), "문화경관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환경논총」, 15.
12. 황기원(1986), "都市文化環境 造成計劃의 接近方法", 「環境論叢」, 19.
13. 황기원(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
14. 황기원(1989), "風景畫에 나타난 景觀", 「環境論叢」, 24.
15. 황기원(1991), "환경을 보는 방법들", 「공간」, 285.
16. 황희연(1985), "도시형태에 대한 문화경관적 해석", 「국토계획」, 제42호.
17. Appleton, Jay(1975), *The Experience of Landscape*, New York: John Wiley & Sons, Ltd.
18. Banz, Gerge(1970), *Elements of Urban Form*,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 Bourne, Larry S. (1982), 2nd ed., *Internal Structure of the C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 Clay, Grady(1980), *Close-up: 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Univ. of Chicago Press.
21. Cullen, Gordon(1961), *Townscap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22. Dickson, Robert E. (1970), *Regional Ecology: The Study of Man's Environ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3. Forman, Richard T. T. & Michel Godron (1986), *Landscape Ec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4. Gibberd, Frederick(1959), *Town Design*,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25. Harvey, David(1969), *Explanation i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26. Jackson, J. B. (1980), *The Necessity for Ruins and Other Topics*,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27. Jackson, J. B. (1984),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8. Krier, Rob(1979), *Urban Space*, New York: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s, Inc.
29. Le Corbusier(1960), *Towards A New Architectur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30. Logie, Gordon, *The Urban Scene*, London: Faber & Faber Ltd.
31. Mikesell, Marvin W. (1968), "Landscap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Sciences*, : 575—580.
32. Meinig, D. W. (1979), 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33. Rasmussen, Steen Eiler(1951), *Towns and Buildings*, Cambridge : MIT Press.
 34. Sitte, Camillo(1945), *The Art of Building Cities*, Trans. Charles T. Stewart, New York : Reinhold Publishing Corp.
 35. Spate, O. H. K. (1968), "Environ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9—96.
 36. Whitehand, J. W. R. (1981), *The Urban Landscap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Papers By M. R. G. Conzen*, (London : Academic Press).